

김포, 문화자치로路 꽃피다

2024 김포 문화자치 백서



김포문화재단
Gimpo Cultural Foundation

2024 김포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김포, 문화자치로路 꽃피다

2024 김포 문화자치 백서

주최·주관 경기도, 김포시, (재)김포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26

홈페이지 www.gcf.or.kr

문의 031-999-3997

2024년 김포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김포, 문화자치로(路) 꽃피다

문화자치 Cultural autonomy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문화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 차

PART 01

2024년 김포 문화자치를 되돌아보며

I 사업개요	6
--------	---

II 세부추진결과

01 문화자치 역량 강화 ‘문화자치기움학교’	8
--------------------------	---

1) 1차 교육 <삶과 문화기획 연결하기>	12
2) 2차 교육 <사업기획서 작성법>	13
3) 3차 교육 <프로젝트 기획·구상>	14
4) 4차 교육 <프로젝트 실행계획 및 기획안 작성>	15
5) 5차 교육 <문화자치 선진사례 벤치마킹>	15

02 문화자치 활성화 ‘문화정원 프로젝트’

• 시민기획자 팀으로 구성된 9개 팀의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16
1) 젊은 도시 김포, 청년 예술가들이 뜬다 • 김포온에어	18
2) 김포의 스토리를 발굴하는 사람들 • 예술창고 일공삼	22
3) 역사적 유물 발굴 김포, 공예문화의 중심지가 되길! • 상상공간	26
4)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김포에서 시작된다 • 나나예술작업실	30
5) 빛나는 아이디어, 팀워크로 더 큰 빛을 발하다 • 등잔밑 스튜디오	34
6) 체력 단련을 넘어, 신체 문화의 향유를 꿈꾸다 • 애플스	38
7) 낯설고 익숙함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 다온	41
8) 어린이 아트 노마드, 예술 영감충전 상점으로 오세요 • 문화부띠끄	46
9) 오늘은 당신이 꽃이에요 • 크크크	51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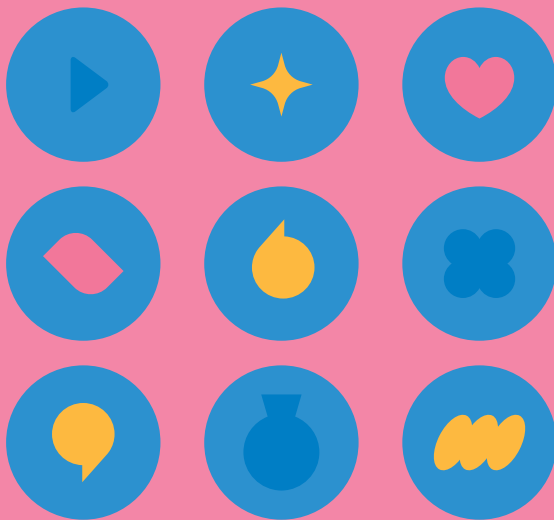
김포 ‘문화자치DAY’로 오세요!

03 문화자치 성과공유회 ‘문화자치DAY × 크리스마스 마켓’	56
------------------------------------	----

PART 01

2024년 김포 문화자치를 되돌아보며

Cultural autonomy Gim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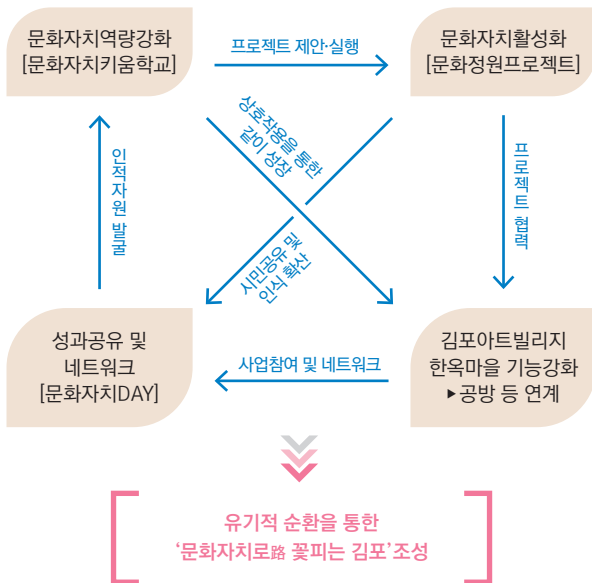


- 사업명 : 2024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김포, 문화자치로 **路** 꽃피다」
- 사업기간 : 2024. 6월 ~ 12월
-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50, 시비50)
- 사업내용 :
 - **문화자치 역량강화** 전문인력 교육을 통해 문화자치 미래자원 발굴 및 양성
 - **문화자치 활성화**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문화자치 활동을 통해 문화적으로 해결

· 추진목표 및 과제

목표	문화자치로 路 꽃피는 김포		
분류	1	2	3
추진목표	지원자원 발굴 및 활용	지역자생 문화자치 기반조성	문화예술공간 기능 강화
추진과제	문화자치 미래자원 발굴 및 양성	시민 문화자치활동 지원	김포아트빌리지 거점 문화자치사업 연계, 공간활성화
사업명	문화자치역량강화 [문화자치키움학교]	문화자치활성화 [문화자치 시민프로젝트 '문화정원 프로젝트']	성과공유 및 네트워크 [문화자치DAY]
사업대상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시민 누구나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시민 누구나	사업참여자, 공방, 시민 등
사업기간	6월~8월	8월~12월	10월, 12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치 매개자 양성교육 실시 (4회) - 문화자치 선도사례 탐방(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율형 문화자치 프로젝트 운영 (9개 프로젝트) - 효과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아트빌리지 문화자치 시민프로젝트 전시 및 체험 부스 운영 - 문화자치 활동 공유 및 네트워크 데이 운영(12월)
------	-------------------------------------------------------------------------------------------------------	--------------------------------------------------------------------------------------------------------------------------	-------------------------------------------------------------------------------------------------------------------------------



1 문화자치 역량강화 ‘문화자치키움학교’

사업개요

- **사업명**: 문화자치역량강화 ‘문화자치키움학교’
- **사업대상**: 관내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시민 누구나
- **사업기간**: 2024. 7월 ~ 8월
- **추진목적**: 지역문화 전문인력 교육을 통해 문화자치 미래자원 발굴 및 양성
- **사업내용**
 - 2023년 1차년도 문화자치활성화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활동가 및 지역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경력단절여성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자치역량강화 교육 추진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문화자치키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차년도 문화자치 활성화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대표활동가 - 문화기획에 관심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1) 문화자치 매개자 양성 교육 실시(4회) : 문화자치 사업 트랜드, 선진사례 등 : 문화자치 사업기획 및 운영 실무 교육 ※ 문화기획 관련 전문가 특강 실시 (2) 문화자치 선진사례 탐방(1회)

· 추진프로세스



세부추진과정

1 시민활동가 발굴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1.1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 2024. 6월 28일 ~ 7월 5일
- 모집대상 :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김포인 문화기획에 관심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시민 누구나
- 모집인원 : 25명 내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접수건수 : 48명
- 참여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해당 여부, 지원동기, 포부, 지역문화 관심도 등 내부평가 진행

1.2 심사결과

- 심사일시 : 2024. 07. 10.(수) 15:00
- 심사장소 : 김포아트빌리지 한옥11동
- 심사내용 : 2024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문화자치키움학교’ 참여자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심사위원 3인의 개별심사 후, 건별 평균점수로 순위결정
- 심사대상 : 48명 — 총 접수건수 48건
- 심사위원 구성 —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명
- 최종선정결과 : 34명

2 문화자치 키움학교

회차	주제	일정	장소	주요내용
1회	[기초교육] 삶과 문화기획 연결하기	7/17(수) 10:00~ 12:00	김포아트홀 세미나실	전문가 특강(강사: 윤성진) - 문화기획이란 무엇인가? 문화자치와 시민기획자의 역할
2회	[기초교육] 사업기획서 작성법	7/18(목) 10:00~ 13:00	김포아트 빌리지 한옥11동	오리엔테이션 전문가 특강(강사: 이지현) - 실전 사업기획서 작성법, 프로젝트 그룹 구성
3회	[기획워크숍] 프로젝트 기획-구상	7/24(수) 10:00~ 13:00	김포아트 빌리지 한옥11동	사례특강(강사: 이은숙) -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 기획 사례, 프로젝트별 기획아이디어 및 방향성 멘토링(멘토: 이지현, 조 영선)
4회	[기획워크숍] 프로젝트 실행계획 및 기획안 작성	7/25(목) 10:00~ 13:00	김포아트 빌리지 한옥11동	프로젝트별 실행계획 및 기획안 작성 멘토링(멘토: 이지현, 조영선) 1차 기획안 발표
5회	문화자치 선진사례 벤치마킹	8/30(금) 9:00~ 17:30	의정부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 자치, 문화기획 선진사례 벤치마킹(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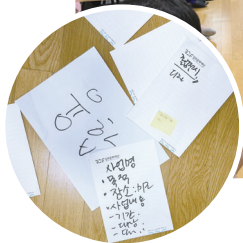
1회차 교육 전문가 특강(강사: 윤성진)

- 문화기획이란 무엇인가? 문화자치와 시민기획자의 역할



2회차 교육 전문가 특강(강사: 이지현)

- 실전 사업기획서 작성법, 프로젝트 그룹 구성



3회차 교육 사례특강(강사: 이은숙)

-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기획 사례, 프로젝트별 기획아이디어 및 방향성
멘토링(멘토: 이지현, 조영선)



4회차 교육 프로젝트별 실행계획 및 기획안 작성 멘토링(멘토 : 이지현, 조영선)



5회차 교육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자치, 문화기획 선진사례 벤치마킹



2

문화자치 활성화 '문화정원 프로젝트'



젊은 도시 김포,
청년 예술가들이 뜬다
김포온에어



김포의 스토리를
발굴하는 사람들
예술창고 일공삼



역사적 유물 발굴 김포,
공예문화의 중심지로!
상상공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김포에서 시작된다
나나예술작업실



빛나는 아이디어,
팀워크로 더 큰 빛을 발하다
등잔밑 스튜디오



체력 단련을 넘어,
신체 문화의 향유를 꿈꾸다
애플스



낯설과 익숙함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다운



어린이 아트 노마드,
예술 영감충전
상점으로 오세요
문화부띠끄



오늘은 당신이 꽃이에요
크크크

젊은 도시 김포, 청년 예술가들이 뜬다



김포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참여하게 된 계기는?

김포는 한 해 4,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매우 젊은 도시이지만,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기회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화예술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김포온에어는 2년 전부터는 <졸업생이 간다>라는 프로젝트로 김포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졸업한 친구들이 학교 점심시간에 후배들을 위해 공연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경기도에서 지원 해줄 정도로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 그 기회를 계기로 김포의 청소년, 청년 예술가들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팀 소개를 해달라.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김포 온에어가 2017년 교육사업 프로젝트 과정 속에서 성장한 청년 기획자 손 건희 님이 학교 및 청소년과의 일정 및 섭외를 담당해주었다. 김보영 님은 공연 관련 지식도 많고, 공연자 섭외 및 전체 공연 진행해 주었다. 이렇게 뜻도 맞고, 일하는 스타일도 비슷해서 청소년 문화 콘텐츠 관련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함께 손 발을 맞추고 있어 의미 있는 팀이다.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는지?

‘청사초롱 아래 음악정원’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혼례식에 사용되던 청사초롱의 의미를 각색하여 들을 청^聽, 사유할 사^思, 시작할 초^初, 응원할 롱^隆으로 음악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청각을 통해 추억을 사유하고, 청소년과 청년예술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자는 뜻으로 공연을 기획했다. 청년 예술가 12명이 참여하였고, 아트빌리지라는 정원에 모여 각자 가지고 있는 예술과 에너지를 공유하며 시민들과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음악회가 되어 뜻 깊었다.

문화자치 사업을 하면서 보람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때이다. 공연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뿐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이 서로 멘토링을 하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청소년들의 음악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관심가져 줄 때 기쁘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단발적인 프로젝트로는 멀리, 길게 가기 힘들다. 지역사회와의 연합 그리고 교육청,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간의 긴밀한 연합과 협력이 필요하다.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과 취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청소년과 학부모, 김포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문화자치 사업을 한다면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부분?

지역사회의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을 마련하고 싶다. 김포에 있는 대학과의 협력도 진행해 보려고 한다.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하는 지역의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내의 문화 행사에 김포의 청년 예술가들을 더 많이 무대에 세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역 시민이 함께 보고 느끼며 응원해 갔으면 좋겠다.

우리 팀에게 문화자치란?

장거리 마라톤이다. 청소년 청년 예술가들을 지속적으로 무대에 세우고, 멘토링하며 문화자치인으로 세우는 일은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일이기예.

기획 ▶ 김남두, 김보영, 손건희



김포의 스토리를 발굴하는 사람들

‘용이 나오는 마을, 용강리를 들어보셨나요?’

김포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연치 않게 처가 댁이 고막리여서 지역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옛날 관리 청이 있을 정도로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강녕포구, 용의 전설이 있는 용강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포 지역(고막리, 조각리, 용강리) 스토리에 푹 빠져 들었다. 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강사이면서 예술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김포하면 쌀과 아파트가 먼저 떠오른다. 지금도 무분별하게 축사와 공장으로 개발되고 있어 안타깝다. 풍수지리적으로 좋고, 유서 깊은 김포가 지역 스토리를 개발하여 가치를 세워나가면서 지역 개발과의 균형을 맞춰가는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여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는지?

민통선 마을이라 사람들의 방문이 쉽지 않은 곳. 그래서 더욱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스토리가 보존되어 있는 ‘용강리’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프로젝트 ‘원더랜드, 용강리 용의 마을축제’ 라고 기획했다. 70년 만에 강녕포구를 열어 웅מות에서 ‘소원의 종이배’를 띄우고, 마을 지역 사람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 ‘용의 전설을 찾아서’라는 단막극 공연과 김포신도시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자치를 실현했다.

문화자치 사업을 하면서 보람있었던 것은?

용강리는 아이들이 없는 마을이라 마을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보며 너무 좋아하셨다. 참여한 김포 시민들이 내년에도 또 하나고 물어보았을 때 너무 기뻛고,





개인적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아빠가 한 일을 보여 줄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 또한 마을 이장님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일구는 것을 헌신적으로 지원해주셨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신뢰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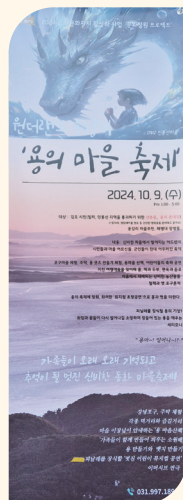
뭐니 뭐니 해도 잊을 수 없는 건, 화장실 에피소드다. 마을 축제를 열기 위해서 공중 화장실이 필요했는데, 폐업한 캠핑장의 화장실이 하나 존재했다. 그것을 누가 치우겠느냐! 직접 대소변을 치우며, 수없이 오바이트 한 것이 제일 기억난다. 곰팡이도 다 뜯어내고, 그곳에 박스를 잘라 붙여서 예술 작품으로 변신시켜서 깨끗히 청소했다. 물길도 다시 파는 작업을 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지만, 행사 당일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된 것이 기적 같다.

앞으로 문화자치 사업을 한다면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부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이번에도 사소한 것으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이장님이 그 역할을 맡아주셨다. 앞으로 진행한다면 지역 주민과의 소통, 협력 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성장과 비전을 제시, 공유하여 마을의 축제 문화를 형성하고 싶다.

나에게 문화자치란?

이야기 보따리다. 우리 어렸을 때도 고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나. 김포의 아이들에게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문화가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 ▶ 서현석, 송은한, 손정은, 노연정

역사적 유물 발굴 김포, 공예문화의 중심지가 되길!



김포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참여하게 된 계기는?

김포에서 도예공방을 운영한지 15년 정도 되었고 작년인 2023년에는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로 터를 옮겨 도자기 공방을 운영 중이다. 김포에는 신도시가 들어서며 예전에 비해 도예체험 공방이 많이 졌지만 김포를 대표하는 도예작가나 도자 관광상품들은 아직 부족하기만 하다. 김포에는 여러 발굴터에서 발견된 도자기 유물들이 제법 존재하고, 1598년 정유재란 당시 끌려간 도자기 도굴 중 초대 심수관인 심당길 도예가의 부친이 김포 대곶에 묘소가 있어 15대 심수관이 찾은 곳으로 조선의 도자문화와도 연결고리가 있는 곳이다. 김포와 도자기와의 연결성을 찾아가며 시민들과 함께 김포만의 도자기 문화를 만들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



팀 소개를 해달라.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김포에서 활동하는 도자기 작가 세명 (방자용 | 구자문 | 안다솔)이 모여서 팀을 이루었다. 참여자가 모두 김포도예가협회, 김포미술협회에서 활동하며 각자의 작품활동과 김포에서 활동하는 도예인들, 예술인들을 모으고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는지?

도자기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사업을 기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포 모담산 발굴터에서 발굴된 도자기 유물을 응용해서 도자기로 만들어 보는 체험, 고려 시대 전통 관악기인 “훈”과 서양 도자 악기인 “오카리나”를 이용한 도자기 악기 공연 등 도자기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문화자치 사업으로 기획한 ‘모담산 도예대첩’은 흙놀이 쌓기 대회, 흙밟기 놀이, 도예작가들의 물레경연 등을 보여주는 도자문화 프로그램이다. 흙을 중심으로 기획한, 어쩌면 김포에서는 처음으로 기획하는 도자프로그램이다.



문화자치 사업을 하면서 보람있었던 것은?

도자기를 중심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고, 시민들이 흠을 가지고 노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아직도 김포는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인 격차가 많고, 시설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가 발전해도 그것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역적 격차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번 문화자치 사업 같은 프로그램 인 것 같다. 작게나마 김포에 도자기 문화가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아 보람 있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모담산 도예대첩’ 프로그램 중 부족한 예산으로 진행되지 못할 뻔 했던 물레 시연을 작가들의 도움으로 진행했는데, 물레로 대형 도자기를 만드는 걸 현장에서 보여드리니 시민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특히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걸 보고 기획의 보람을 느꼈다.

시민들 혹은 예술가들의 일방적인 축제가 아닌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이 서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다.

앞으로 문화자치 사업을 한다면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부분?

‘도자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싶다. 도자기는 체험, 전시, 워크숍, 프리마켓, 도자기약기 공연 등 생각보다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김포는 지역 축제나 문화축제를 기획할 때 항상 지역의 특색을 살리려 고민을 많이 하지만 아직 명확한 대안을 못 찾는 중이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문화자치 사업을 통해 도자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발전시켜 김포를 대표하는 ‘도자기 페스티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우리 팀에게 문화자치란?

문화유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기획자들이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행정적인 문제 등 기타 여러 문제점들만 보고 판단해주시 말고, 보는 대로 받아들이고 익히는 유치원의 아이들처럼 우리지역 문화기획자들의 다양한 기획들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기획 ▶ 방자웅, 구자문, 안다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김포에서 시작된다!



김포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참여하게 된 계기는?

외국계시민을 위한 김포시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찾기 힘들다. 우리는 김포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평소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문화 체험을 기획해보고 싶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싶었다.



팀 소개를 해달라.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우리 팀원들이 속해있는 나나예술작업실은 외국계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술프로젝트를 진행 해 오고 있는데, 마침 뜻이 맞는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시오타니 유미코, 에리카, 임혜영, 송수연, 이한솔 이렇게 5명의 팀이 만들어졌다.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는지?

외국계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한국계 시민이 함께 하는 예술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임혜영님은 외국계 주민이 써낸 북아트의 출판을 담당해 주었고, 에리카님은 다양한 인간군상의 공존을 표현하는 꽃꽂이 클래스를, 유미코님은 일본 말차와 화과자 만들기 프로그램의 참여자 국적 비율은 한국인 50% 외국인 50%로 하여 티타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친목을 도모했다.

문화자치 사업을 하면서 보람있었던 것은?

능력 있는 외국계 주민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쳐보이며 한국계 주민들과 아름다운 공존의 세상을 모색해본다는 것이 가장 뜻 깊었다. 에리카님은 아트 클래스 참여자 분들의 열정이 넘쳐서 이 시간만큼은 국적 무관한 ‘공동체’가 되었고, 결과물도 다양하게 나와서 ‘문화 다양성’이 충분히 표현되는 기회였다고 할 만큼 보람 있는 사업이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유미코님은 “제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중국분이 ‘한국에 살면서 일본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기뻐다.” 더 나아가 김포에 있는 외국인들이 모국의 문화를 발산하는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참여자들에게 같은 재료를 나누어줘도 창작의 결과물은 각기 다르다. 이 ‘다름’에 국적은 전혀 상관없다. 우리 각자의 존재는 동일하지 않으며, 각기 다른 그 차이가 이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화자치 사업을 한다면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부분은?

문화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시민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다. 시민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우리 팀에게 문화자치란?

‘누구나’다. 국적무관하게, 누구나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재능을 펼치며 사회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기획 ▶ 송수연, 시오타니 유미코, 에리카, 임혜영, 이한솔

빛나는 아이디어, 팀워크로 더 큰 빛을 발하다

김포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으로 전시와 강연 기획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 문화자치 사업 계획서 작성법도 알려준다는 것을 알고 이번 기회에 이걸 알아두면 기획자로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

팀 소개를 해달라.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다섯 분이 자연스럽게 모였다. 장다운 선생님은 보름산 미술관의 소장이시며 재단과의 소통 및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출력물 업무 진행을 맡으셨다. 조성욱 선생님은 등잔밑 스튜디오라는 음악 사업을 하시며 팀 사업 관련 전반적인 프로세스 및 외부 업체와의 컨택을 맡아주셨다. 황수지 선생님은 문화기획자 일을 하고 계시고 팀 내에서 회계 업무를 도맡아 주



셨고, 정다운 선생님은 시각디자인과 졸업생으로서 팀 내에 디자인 작업을 도맡아 주셨다. 나(김수린)는 국어국문과 재학생으로서 팀 내에 필요한 글을 주로 담당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만나 큰 시너지를 냈다.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는지?

전시 쪽으로 팀원들의 관심이 모일 때쯤, 로고라이트에 관한 아이디어가 모였다. 로고라이트는 디자인을 새긴 전용 렌즈에 빛이 투과하며 바닥이나 건물 벽면에 이미지를 투영한다. 만약 김포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이미지를 로고라이트로 만들어서 보행로에 비추다면, 좀 더 공공적이고 아름다운 길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 뜻을 모았다. 10월 19일, 선착순 1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옥마을에 숨겨진 로고라이트를 찾아보고, 나만의 작품을 디자인하는 현장 행사를 진행했다. 이때 스스로 그린 그림을 열쇠고리로 만들어 소장할 수 있게 하여 참여를 독려했다. 그 과정에서 산출된 작품은 아카이빙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 홍보자료로 활용했고, 선별된 작품을 김포한옥마을 로고라이트로 전시하였다.

문화자치 사업을 하면서 보람있었던 것은?

한옥마을에서 시민분들이 로고라이트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을 때가 가장 좋았다. 사실, 프로젝트를 처음 신청할 때는 시민들과 직접 접촉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해주시고 자신이 만든 열쇠고리를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문화자치 사업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참여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시민들의 생생한 표정, 손뼉을 치며 깔깔 웃는 모습,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즉석에서 눈으로 확인하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고, 문화자치가 가진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문화자치 사업을 한다면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부분?

우리 팀 분위기가 참 좋았다. 새벽까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회의에는 늘 함께 참여했다.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의 확장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다. ‘시민 참여 로고라이트 전시’라는 아이덴티티를 꾸준히 가져가면서 장소를 확장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한옥마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스토리를 로고라이트에 담아 그들이 사는 장소에 비춰보는 것이다.

우리 팀에게 문화자치란?

우리가 함께 내딛는 빛발자국이다! 문화자치는 함께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강중’ 점프를 뛰는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한발 한발 함께 내딛는 걸음에 빛을 새기며 나아가는 발자국이다.

기획 ▶ 장다운, 김수린, 황수지, 조성옥, 정다운



애플스 어서와~ 애니멀플로우는 처음이지?

체력 단련을 너머, 신체 문화의 향유를 꿈꾸다

김포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참여하게 된 계기는?

〈춤추는 레인보우〉라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로 신체성을 강조한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기획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활동을 하다보면 댄스 분야의 종사자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

팀 소개를 해달라.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홍진현, 홍석현 선생님은 모두 기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나도 무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는지?

김포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많은데,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몸으로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데서 고민이 시작됐다. 신체성을 가미한 활동이야말로 짧은 시간 안에 서로를 가깝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아빠를 배제하지 않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애니멀 플로우’를 가져왔다. 애니멀 플로우는 말 그대로 바



다에서 동물의 몸짓을 형상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맨몸 운동이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신선한 면이 있다. 40분 동안 엄마와 아이가 응원 댄스, 붐바 스틱 같은 댄스 운동을 즐기고, 쉬는 시간에 아빠가 애니멀 플로우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물론, 어떤 구성원도 중간중간 함께 섞여서 모든 신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재밌는 에피소드는?

개발한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촬영을 위해 사우동 스튜디오에서 모였다. 춤추는 레인보우에 소속된 프리랜서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주셨는데, 이 선생님들은 무용 전공자들이시고 여성 분들이다. 그분들이 고릴라, 코브라 등의 형태를 표현하는 애니멀 플로우를 접하니 신선한 충격이 있었다.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할지 난감했는데, 금방 화합이 됐다. 그런 게 바로 신체적 교류의 힘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협업을 통해 발견되는 새로움이 창조성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이 자체가 진정한 통합 교육, 융합 교육의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라는점? 개선할점?

문화자치 사업이 없었다면, 이런 신선한 협업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확실성을 통한 새로운 만남의 장을 제공해주셔서 고맙다. 다만, 성공적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참여자들의 교류 활동을 프로그램에 충분히 녹여주면 좋겠다.



앞으로 문화자치 사업을 한다면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부분?

이번 사업에서 온 가족이 모여 교류하면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진심을 녹여 댄스와 운동을 접목한 주시회사 트렁크만의 가족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것이 너무 아쉽다.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현해보고 싶다. 대부분의 운동은 신체 단련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것은 신체적 표현의 향유이다. 달리 말하면 건강한 신체 문화의 공유와 확산이다. 김포의 시민들이 모여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춤추고 몸을 움직이면서 진정한 물입의 즐거움을 향유하게 하는 것. 그 가치를 실현해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회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우리 팀에게 문화자치란?

무브먼트(movement:움직임)이다. 문화자치는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즉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기획 ▶ 홍진현, 이소이, 홍석현



다온 김포 한옥마을 책마당

낮섬과 익숙함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머무르 세상



김포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옥에서 즐기는 책 축제, 전통 공예 체험을 제공하여 김포 시민들에게 한옥마을을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고, 김포 시민들의 독서 활성화와 문화예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참여했다.



팀 소개를 해달라.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한옥마을에서 머무르라는 책방을 운영하는 저(이호진)와, 그림책으로 하브루타 수업을 하고 있는 김혜정 선생님, 완초공예 문하생이신 권영미 선생님이 만나 ‘좋은 일이 찾아온다’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 ‘다온’으로 팀을 만들게 됐다. 김혜정 선생님과 이미 머무르에서 그림책 하브루타 수업을 한 인연이 있다. 사실 완초공예에 대해서는 우리도 처음이었다. 강화도에서 생산되는 화문석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완초공예에서 비롯된 지는 처음 알았다. 낯설면서도 익숙하고, 한옥이라는 풍경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전통 공예라 생각했다. 개인 활동가였던 각자가 ‘다온’이라는 팀을 이루어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같다.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는지?

머무르란 공간을 거점으로 책을 주제로 한 축제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하브루타와 완초공예를 한자리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수업을 프로그램으

로 만들어 초등학생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또, 김포 시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책 행사로 <김포 한옥마을 책마당>을 열었다. 김포의 동네 책방이 참여해서 각자 개성을 살린 부스를 열고, 어린이 독서문화운동 시민단체인 김포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도 부스를 꾸미고 시민들과 만났다. 특별 행사로 작가와의 만남, 책방지기와의 대화와 같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책을 매개로 김포에 있는 독립서점, 작가, 독자, 도서연구회 회원 등 활기찬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자리 모이신 분들이 완초공예를 만나고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바라는 마음으로 체험 부스도 열었다.

문화자치 사업을 하면서 보람있었던 것은?

김 : 하브루타 수업에서 <나는 그렇고 그런 고양이아 아니야>라는 책을 읽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들이 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책이었는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느꼈다. 성인들이 생각해 내는 질문도 새로웠고, 어린이들에 비해 자신을 드러내고 얘기해 볼 기회가 많이 없기에 이런 시간이 성인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 머무르 팀의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동네 책방, 도서 연구회, 완초 공예의 네트워킹의 규모가 제법 컸던 것 같다. 그러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도 많고 고민도 많았다. 그런데 10월 19일 책마당 부스를 열었던 책방지기들이 오롯이 책과 사람에 집중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책 행사를 열어주어 고맙다고 내년에도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날씨도 좋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무척 감사했다.

재밌는 에피소드?

임산부를 대상으로 그림책 하브루타 수업과 완초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 날이 10월 10일이었다. 알고 보니 이날이 임산부의 날이더라. 알고 기획한 것은 아닌데 참여자와 통화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깜짝 놀라면서도 무척 즐거웠다.

앞으로 문화자치 사업을 한다면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부분?

일하는 사람으로 오래 살다가 머무르라는 공간을 연 지 1년이 됐다. 그동안 내가 노는 문화, 여유를 즐기는 방법을 몰랐구나 싶었다.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좀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마음으로 편히 들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머무르를 열었다. 꼭 책을 좋아하지 않아도 한옥마을 책방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초대받아 여행을 온 듯한 호기심이 충족되는 시간을 즐기면 좋겠다. 매년 머무르 한옥마당에서 책 축제를 열어서 책을 즐기고 아끼는 사람들과 마음껏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 이 과정에서 하브루타, 완초공예처럼 사실은 나도 모르게 접하고 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을 친숙하게 만나도록 돕는 문화예술 공유의 장이 열리면 좋겠다. 결국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형성이 문화 자치의 핵심이지 않을까.

우리 팀에게 문화자치란?

다운이 생각하는 문화자치는 ‘이웃들과 함께 하하호호 즐길 수 있는 마중물’이다. <김포 한옥마을 책마당>은 단순히 한 번의 행사가 아닌, 책과 전통공예, 그리고 지역 사회가 어우러져 지속적인 교류와 성장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자 촉매제이다. 마치 마중물이 펄프에서 풍성한 물줄기를 끌어올리듯,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지역 문화의 깊이를 함께 나누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기획 ▶ 이호진, 김혜정, 권영미

어린이 아트 노마드, 예술 영감충전 상점으로 오세요



김포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작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서 <키즈 아트페어> 프로젝트를 실행했던 경험이 바탕이 됐다. <키즈 아트페어>에서 어린이 작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영감이 고양되는 지점들이 인상 깊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제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예술 감각을 일깨우고, 예술 창작의 과정을 접할 수 있도록 <인스파이어 아트 랩 캠프>라는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모토 하에 결과형이 아닌 과정 중심의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팀 소개를 해달라.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문화 예술 기획자 및 시각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홍자우)와 마을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가진 이영주 선생님, 오카리나 연주자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미영 선생님이 팀을 이뤘다. 부티크(boutique)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전문가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와 상점이라는 뜻이 있다. 문화부띠크의 팀원들과 예쁜 상점을 드나들 듯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에서 지었다.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는지?

가장 공동인 것인 김포 한옥마을에서 있었던 1박 2일 인스파이어 아트랩 캠프이다. 김포에 거주하는 어린이 10명을 모아 오감을 자극하는 예술체험활동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아트 노마드가 되어서 한옥마을의 곳곳을 방문하며 도예(촉각 활동), 감정 아로마(후각 활동), 오카리나(청각 활동), 양갱 만들기(미각 활동), 그림 그리기(시각 활동)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요 활동 사이사이에도 오케스트라 콘서트, 명상과 싱잉볼 요가 등 수준 높은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해 노력했다. 또, 한옥마을의 전통스러움과 어울리는 미각 효과를 위해서 전통 문양이 새겨진 띠를 두르게 한다든지, 활동 프로그램 북을 조선 시대의 서책 형태로 만들어 주는 등 디테일한 곳까지 신경을 썼다. 아트 캠프에서 나온 어린이 작가들의 시각 작업물을 12월 7일에 한옥마을에서 전시하였다.

문화자치 사업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것은?

이 : 아트 캠프에 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참 많이 받았다. 참여 어린이들이 ‘너무 좋았다,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주기도 했고, 마지막 수료식 후에 한 아버님은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도 이런 아트 캠프가 있으면 자신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겠으니 꼭 불러 달라고 하시기도 했다. 사실 무작위로 모인 어린이들이 짧은 시간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아이들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흡수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 예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한 기회와 장을 제공해준다면, 어린이들이 예술가로서의 무궁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라 든다.

홍 : 예산 문제나 장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팀원들의 역량과 기지를 발휘해서 헤쳐 나갔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당일 행사 일정이 자주 조정돼서 영주 선생님이 일정표를 몇 번을 고쳤는지 모른다. 아이들이 두 번 띠도 정미영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다. 게스트하우스 섭외가 안 돼서 한옥동으로 장소가 바뀌었을 때도 우리가 직접 숨은 매트를 찾아 먼지를 털어가며



준비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아트 캠프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서 헤쳐나가면서 우리 팀의 저력을 확인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 문화자치 사업을 한다면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부분?

올해는 소수 인원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파일럿 형태의 인스파이어 아트캠프 캠프를 실행했다. 이렇게 개발된 예술 캠프의 대상을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해서 실행해보는 것이 문화부딕크가 가야 할 다음 단계가 아닐까 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너무 아이들 중심의 예술체험교육이 많아서 오히려 부모들이 소외된다는 의견을 들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부모를 위한 아트 캠프를 진행해보고 싶다. 결국은 아빠 엄마의 예술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가정과 지역 사회의 예술 문화 저변이 길러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경험을 레퍼런스로 빈도와 퀄리티를 높인 문화부딕크만의 아트 캠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싶다.

우리 팀에게 문화자치란?

문화부딕크가 생각하는 문화자치는 ‘우리의 색과 이야기가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이 되는 삶 속의 작은 축제’이다.

기획 ▶ 이영주, 홍지우, 정미영

오늘은 당신이 꽃이에요

김포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참여하게 된 계기는?

김포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그 취지와 방향에 있어서 참여자의 자발적 동기와 관심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늘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각자가 가진 재능을 써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 다양한 문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이 사업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들었고 의미있는 시도라 생각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팀 소개를 해달라.

팀이름이 크크크이다. 크리에이터 3인의 줄임말인데, 중의적으로는 유쾌한 콘텐츠 만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크1은 방송작가 출신의 5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맘스라디오 대표이며, 미디어 콘텐츠 전문 크리에이터이다. 크2는 초등교사이자 어린이 독서문화기획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어린이 콘텐츠 전문 크리에이터이다. 크3은 국제 NGO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전방위를 서포트하는 능력을 가진 크리에이터이다. 각자 분야에서 가진 전문성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다. 다들 창의성과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회의가 끝나면 배꼽이 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하하.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는지?

김포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문화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독려했기 위해 ‘오늘은 당신이 꽃이에요’라는 문구로 ‘포토존’을 만들었으며, 김포의 문화자치 사업의 영구적이고 확산적인 성과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아카이빙한 소재자를 기획 제작하여 지속적인 문화자치 사업의 가치와 의미를 김포 시민들과 공유하며, 홍보하는 일을 진행했다.

문화자치 사업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것은?

자치백서를 만들기 위해 8개 팀의 인터뷰를 하면서 크크크팀의 존재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단순히 취재를 목적으로 한 인터뷰를 추구하기보다는 각 팀이 실현하고자 했던 의도와 진정성과 읽어주고, 프로젝트의 향후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공감해주겠다는 마음으로 한팀 한팀 공들여 인터뷰했다. 프로젝트의 한가운데 있다 보면 때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미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 크크크가 모든 팀의 유쾌한 응원단이자 다정한 목격자로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문화자치데이 행사에서 시민들을 위한 포토월 공간을 마련했다. 시즌에 맞춰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야심 차게 대형 포토월을 준비했는데, 마침 문화재단에서 산타를 불러 주셔서 완벽한 조합을 이뤘다. 여러 가족이 산타와 포토월을 배경으로 정답게 사진을 찍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순식간에 연못 공간이 김





포 시민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며, 문화자치의 저력이 바로 이 순간,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문화자치 사업을 한다면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부분?

김포시가 2025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도시로 선정되었다. ‘책의 도시’라는 지칭은 김포 시민으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타이틀이다. 이번 기회로 온 시민들이 합심해서 국내외에 김포의 문화적 역량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크크크팀과 각 팀원이 가진 콘텐츠 역량으로 내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젝트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 팀에게 문화자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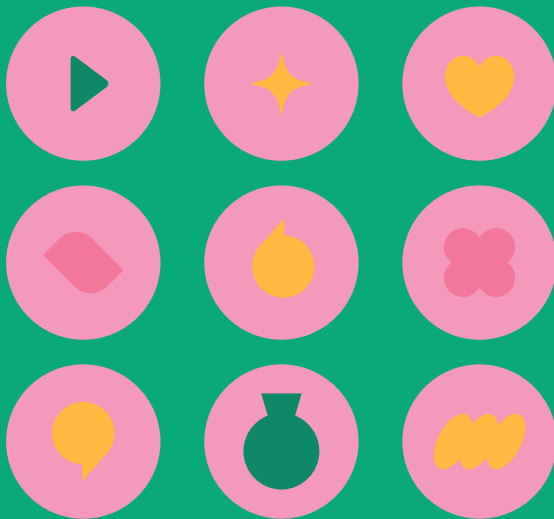
크크크가 생각하는 문화자치는 ‘꽃다발’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피우는 꽃 송이가 어우러져 김포의 문화정원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가꿔나가길 바라며, 그 씨앗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화자치 활동을 했다.

기획 ▶ 김태은, 배현명, 김지현

PART 02

김포 ‘문화자치DAY’로 오세요

Cultural autonomy Gimpo



3

문화자치 성과공유회 ‘문화자치DAY ×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개요

- 일 시 : 2024. 12월 7일(토) 10:00~18:00
- 장 소 :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 운영주체 : 주관) 김포문화재단
참여)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참여자, 지역 공방 및 예술인, 지역농가 등
- 참여인원 : 2,742명
- 사업내용

문화자치DAY 및 문화자치 성과공유회

- 문화자치 시민프로젝트 ‘문화정원 프로젝트’팀별 홍보부스 운영(9개팀)
- 문화자치 시민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이벤트 운영
- 문화자치 시민프로젝트 시연(3개팀), 문화정원프로젝트 네트워킹

지역 예술인 및 농가 협업 ‘크리스마스 마켓’

- 지역 예술인 및 청년 농가 협업 크리스마켓 운영, 푸드트럭 등
- 크리스마스 전시(야외), 2024 한옥마을 성과공유전시(창작3동)

세부추진결과

1 문화정원 프로젝트 성과 공유 및 문화자치 시민인식 확산 이벤트 운영

구분	시간	내용	장소
문화자치 DAY '문화정원 프로젝트'	14:00~ 16:00	〈문화정원 프로젝트〉홍보부스 운영 '문화정원 속 빛을 찾아서' : 시민대상 각 프로젝트의 의미 및 성과 등 안내 : 문화정원 프로젝트 홍보부스 투 어 이벤트 - 문화정원 프로젝트 1개 부스에 설명을 들을때마다 에너지 적립	천현정 광장
		문화자치 시민인식 확산 이벤트 '문화정원 속 목소리를 찾아서' ① SNS 인증이벤트 : 문화자치 인식확산을 위한 포 토존 설치 및 인증이벤트 운영 ② 시민이 생각하는 '문화자치'란? : 김포시민이 생각하는 문화자치 의 의미를 적어보는 창구 운영	천현정 광장
		문화정원 프로젝트 시연 : 책방書 맛읽는 문학생활, 어서와 ~애니멀플로우는 처음이지, 모담 산 도예대접	한옥5동 한옥11동 창작3동
		문화정원 공연 및 이벤트 '문화정 원에 나타난 산타를 찾아서' : 공연 및 문화정원프로젝트 홍보 산타이벤트 진행	천현정 광장





2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 및 네트워킹

- 일 시 : 2024. 12월 7일(토) 16:00
- 장 소 :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창작3동
- 참석자 : 문화자치 시민프로젝트 참여자 전원, 김포시
- 주요내용
 - 2024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성과 및 프로젝트 성과 공유
 - 문화자치 시민프로젝트 참여자 소감 공유 및 행운권 추첨 등 네트워킹

3 지역예술인, 공방, 농가 등과 협업, 크리스마스마켓 운영

- 일 시 : 2024. 12월 7일(토) 13:00~18:00
- 장 소 :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내
- 참여자 : 지역예술인, 지역 공방, 청년농가, 지역 푸드트럭 등 34개 부스
- 주요내용
 -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농가, 예술가, 공방 등과 상호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자치DAY'와 연계한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





시간	문화정원 ZONE	공연	전시	크리스마스마켓 ZONE	먹거리 ZONE
14:00	문화정원 속 빛을 찾아라 (문화정원 프로젝트 투어이벤트)		창작3동 〈북적BOOK작 우리 동네 작가교실〉 성과공유전시	크리스마스 소품 등 마켓 및 체험부스	
15:00	문화정원 속 목소리를 찾아라 (포토존 인증이벤트, 시민이 생각하는 문화자치함?)	15:00~15:30 편대집	창작4동 문화정원프로젝트 〈인스파이어 아트맵클로〉 성과공유전시	● 한옥마을 속 산타를 찾아라 (산타 가워바워보게임)	겨울철 먹거리 (왕꼬치, 닭꼬치, 오명 등)
16:00		16:00~16:30 아카펠라그룹 MTM	아외 한옥마을 아외전시 〈윈터발리지〉	● 한옥마을 속 아이템을 찾아라 (구매영수증 이벤트)	
17:00					
18:00					

2024 김포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김포, 문화자치로路 꽃피다

2024 김포 문화자치 백서

발행일 2024. 12. 27(금)

발행인 대표이사 이계현

발행처 (재)김포문화재단(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26)

기획총괄 예술본부장 신영민, 전통마을팀 박형숙, 윤다솜, 주영선

기획편집 크크크(김태은, 배현명, 김지현)

디자인 권다운

홈페이지 www.gcf.or.kr

문의 031-999-3997